

일터의 죽음과 차별 멈추자는, 그 무거운 '희망'을 담고 ... '아리셀 희망버스' 출발하다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8.18 20:09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현장스케치
50개 도시, 100대 차량 2000명 추모현장으로 집결



일터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에 50개 도시, 100대 희망버스·승합차를 탑승한 2000여 명이 화성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추모현장으로 집결했다. 사진=박한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55일을 맞은 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해결된 것도 없는 참사 현장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희망버스 55대가 시동을 걸었다. 더 이상은 일터에서 반복되는 죽음과 차별을 멈추겠다는, 무거운 '희망'을 안고서다.

'일터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는 50개 도시, 100대 희망버스·승합차를 탑승한 2500여 명이 17일 화성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추모현장으로 집결했다.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고 제대로 된 대책과, 배보상이 있을 때까지, 이 참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는 연대의 버스다.

서울지역에서는 백기완버스, 종교버스, 기후버스 등 부문별 버스를 비롯해 청년 학생, 인권, 산재 피해 유가족 모임인 '다시는', 문화예술인 등과 개별참가자를 합쳐서 8대의 버스가 출발했다. 백기완 버스에는 백도명 서울대 전 보건대학원장과 신학철 원로 화가가, 종교버스는 아리셀 참사 이후부터 함께 했던 성직자와 수도자가 탑승합니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유가족인 김선애님도 버스에 탔다. 평화바람 문정현 신부님도 함께하며, '9월 7일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기후활동가들은 '기후버스'를 탔다.

희망버스는 우선 참사현장인 화성전곡산업단지 아리셀 공장으로 향했다. 대형으로 제작된 하늘색 리본이 참가자들을 맞았다. 아리셀 참사 추모를 의미하는 하늘색 리본 조형물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다. 오후 1시에는 경기지역 노동자들이 일찍 보여 이곳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속속 모여들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워 인사를 나눈다.

참사 현장에 세워진 임시분향소에서 줄을 서 합동 분향하고, 아리셀 공장 울타리에 하늘색 리본을 달며 추모했다. 공장을 직접보는 것도, 영정을 통해 희생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인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어 불타버린 공장을 한참 바라봤다.



일터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에 50개 도시, 100대 희망버스-승합차를 탑승한 2000여 명이 화성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추모현장으로 집결했다. 사진=김선호(공공운수노조)



일터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에 50개 도시, 100대 희망버스·승합차를 탑승한 2000여 명이 화성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추모현장으로 집결했다.
사진=김선호(공공운수노조)

행진은 오후 3시부터 화성시 남양읍 남양사거리에서 시작됐다. 사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가 화성시청으로 천천히 걸었다. 영정을 든 유족들이 앞서고, 그 뒤를 2500명이 따른다. 이들은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그동안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구호를 따라 외친다. '진상을 규명하라', '피해자권리 보장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순관을 구속하라'.

희망버스 본대회 행사는 오후 3시 40분 화성시청 정문에서 시작됐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의 참석으로 깔아두었던 850개 의자는 진작 만석이다. 드넓은 화성시청 앞 도로 한켠을, 아직 참사를 잊지 않은 2500명이 꽉 채웠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을 선뜻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너무 슬프고 엄숙하지만은 않게 투쟁을 결의하겠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표였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치기로 한다. 이 비극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행사에서 나눠진 '아리셀 희망버스'의 중국어는 그래서 '아리셀 단결(团结)버스'로 번역됐다. 희망버스의 역사적 맥락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유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희망'을 말하기 전 굳건히 다져야할 단결이다.



일터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에 50개 도시, 100대 희망버스·승합차를 탑승한 2000여 명이 화성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추모현장으로 집결했다.
사진=백승호

유족들의 눈물과 절규는 매일 같지만, 이들 또한 조금은 단단한 표정으로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맞기로 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장은 "며칠 전부터 희망버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품어안고, 꽃과 리본을 준비하며 희망버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의 가장 큰 걱정은 이 일이 잊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이태원 참사가, 오송 참사가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관심과 지지와 연대의 우리들의 힘이 함께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절망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도 사고 전후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안전대책을 지적하면서 "민주노총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족들과 온몸으로 함께 싸워나가겠다. 전국의 곳곳으로 더 큰 투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외쳤다.

본행사는 아리셀참사 대책위를 대표해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노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종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복남 공동대표(법률),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아 라이 위원장(이주)이 대표단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임정득 밴드와 서정숙의 추모춤, 416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릴레이발언이 있었다. 기후버스, 이주노동자버스, 천주교 예수회버스 등 '주제별 희망버스'를 타고 온 이들도, 50개 도시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들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제각기 다른 위로의 언어로 비극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했다.

제법 긴 시간동안 릴레이발언이 진행됐음에도, 참가자들은 높은 집중력으로 발언을 경청했다. 유족들도 이들의 발언을 귀담아 들었다. 위로의 마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이 힘으로 또다시 싸워갈 시간들을 준비한다.



일터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에 50개 도시, 100대 희망버스·승합차를 탑승한 2000여 명이 화성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추모현장으로 집결했다.
사진=박한솔



일터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에 50개 도시, 100대 희망버스·승합차를 탑승한 2000여 명이 화성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추모현장으로 집결했다. 사진=박한솔

마지막 순서, 유족들이 발언했다. 동지, 투쟁 그리고 연대라는 단어가 조금씩 유족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다.

유족들은 투쟁경과를 설명한 뒤 "여전히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캄캄하다. 어디 서서 걸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여기 와주셔서 열심히 힘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뒤 "저희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진상이 규명되기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거의 흐트러짐 없이 싸워 나가겠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유가족들, 끝까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믿고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진심을 전했다.

본행사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화성시청 본관 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 50여일 전 그날처럼, 화성시청 정문에는 또다시 추모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간단한 음식을 먹으며 모든 행사를 마쳤다. 직접찾은 화재 현장, 고인들의 영정과 이름, 그리고 유족들의 모습을 안고 다시 자신들의 삶터로 돌아갔다. 더 넓고 깊은 연대로, 아직은 오지 않은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일터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에 50개 도시, 100대 희망버스·승합차를 탑승한 2000여 명이 화성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추모현장으로 집결했다.
사진=김선호(공공운수노조)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